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 사료 2744건 신청

한·중·일 등 9개국 단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출
피해자 증언·치료기록 등 포함
세계사 큰 영향... 등재 가능성 ↑

한국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와 영국 전쟁기념관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등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에 따르면 9개국 단체들은 2744건으로 구성된 위안부 관련 자료를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전달했다.

위안부 기록물에는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 위안부 피해자 조사자료, 피해자의 치료기록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중국은 1931년부터 1949년 사이에 만들어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모아 ‘위안부 자료, 일본제국 군대의 성노예’라는 명칭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난징대학살 문건과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들려는 중국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고, 유네스코에도 유사 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반론할 기회가 없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여러 나라가 합심해 자료를 모으면서 등재될 확률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위원을 지낸 서경호 서울대 교수는

“이번에는 참가국이 많고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인류의 ‘거대 기억’이라는 점이 입증될 것”이라며 “관련 자료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작년에 위안부 기록물이 등재되지 않은 데 대해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들이 여러 나라가 함께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중국이 위안부 기록물을 홀로 신청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저지 시도가 유네스코의 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어서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놓고

대립할 한국과 일본은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할 처지에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는 지난 3월 조선통신사의 외교, 여정, 문화기록 111건, 333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조선왕실의 어보(御寶)와 어책(御冊),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할 바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한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큰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내년에 열린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회의 결과를 추진하면 등재가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페루 대선 출구조사
쿠친스키-후지모리
오차범위 내 초접전



쿠친스키 후지모리

페루에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77) ‘변화를 위한 페루인 당’ 후보가 게이코 후지모리(41) 민중권력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현지 여론조사 기관들의 출구조사 결과, 승패 관측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라져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2%를 개표한 결과, 쿠친스키 후보가 50.6%를 득표했고 후지모리 후보가 49.4%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후보가 1~2% 안팎의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현지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와도 비슷한 양상이다. 앞서 입소스-아포요는 투표 종료 직후 쿠친스키 후보가 50.4%, 49.6%의 후지모리 후보를 앞섰다고 전망했다.

이런 초접전 상황에서 ‘독재자의 딸’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독재가 부활할 것이라는 반(反) 후지모리 정서와 전체 유권자 2300만 명의 3.8%(88만5000명)에 달하는 해외 부재자들의 투표 향배가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베이징서 열린 G2 경제대화 미국과 중국이 양자회담 및 지역·글로벌 이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가 6일(현지시간) 베이징의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했다. 영국 인사들이 개막식에서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 국가주석, 류옌둥 중 부총리, 왕양 중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미국과 중국이 양자회담 및 지역·글로벌 이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가 6일(현지시간) 베이징의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했다. 영국 인사들이 개막식에서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 국가주석, 류옌둥 중 부총리, 왕양 중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월 300만원 무조건 지급...스위스 국민투표 77% “반대”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치른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른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

아 통과 가능성은 작게 전망됐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서명에는 국민투표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13만명이 서명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

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 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앞질렀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오나라의 대도독 여몽

여몽(呂蒙, 178-220)의 자는 자명으로 안휘성 여남군 부파현 출신이다. 오나라의 대도독이 되어 계책을 써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탈환했다.

그는 어려서 집안이 어려워 강동에 사는 매부 등당에 의지했다. 등당이 토벌에 나서자 10대 중반의 나이로 불려 출정했다. 이 사실을 안 모친이 화를 내자 그는 “가난과 미천함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잘못을 벗어나고 공을 세우면 부귀를 얻을 수 있다.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해 벌을 면했다.

손책에게 발탁되어 별부사마가 되었고 손책 사후에는 손권을 보좌했다.

208년 적벽 전투에서 주유, 정보와 함께 조조의 군대를 물리쳤고 강릉을 지키던 조인과의 싸움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215년에는 합비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손권을 구해 신임을 받았다.

여몽을 피할 것을 고민하였다. 조인을 치기 위해서는 추가 병력이 필요했다. 당시 오의 공격에 대비해 강릉에 대군을 주둔시켜 놓았는데 이를 차출할 수 있으면 조인을 공격할 수 있었다.

관우의 내심을 꿰뚫어 본 여몽은 병에 걸렸다는 거짓된 정보를 형주 쪽에 흘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관우가 강릉에 많은 병력을 머물러 지키도록 한 것은 제가 그 뒤에서 모의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저는 병을 이유로 병사들을 견임으로 돌려보내려 하니 관우가 이 소식을 들으면 수비 부대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우리 대군이 장강을 거쳐 밤낮으로 달려 올라가서 그의 텃밭 성을 습격하면 남군을 항복시키고 관우를 붙잡을 수 있다.”

강릉에 배치된 군사를 차출하는 바람에 강릉이 함락되었다. 관우는 번성키던 조인과의 싸움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215년에는 합비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손권을 구해 신임을 받았다.

지략으로 관우 물리치고 형주 탈환

217년 노숙이 죽자 오나라의 대도독이 되었다.

최대 현안은 형주 탈환 문제였다. 적벽 대전 이후 오나라는 형주 일부를 축에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측은 자신들의 땅으로 인식해 오·촉 두나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대촉 온건론자인 노숙때는 갈등이 봉합되었지만 주유의 강경노선을 따른 여몽은 형주를 탈환해야 강동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손권에게 계책을 올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관우 자신이 빈번히 말을 뒤집어 반복하므로 믿을 수 없다. 지금 관우가 쉽게 동쪽으로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군의 영명함과 저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력이 강하지 않을 때 도모하여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야 한다.”

형주의 관우는 용맹하였지만 지나치게 교만했다. 손권은 관우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한 바 있으나 관우는 별척 성을 내며 “어찌 호랑이의 딸을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는가”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손권은 대노했으나 물론이었다.

관우는 번성에 주둔한 조인을 쳐 북상을 도모하려 하였다. 조조는 관우의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앞질렀다. /연합뉴스

손권은 그를 남군 태수로 삼고 간릉후에 봉하였다.

형주 탈환 직후 큰 병에 걸렸다. 손권은 치료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병에 차도가 없어 42세에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하사받은 재물을 모두 창고 속에 넣어두고 자기가 죽으면 조정에 돌려주며 장례를 간소하게 치를 것을 당부하였다.

오나라 장수중에 감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성질이 포악하였다. 손권이 크게 노여워했지만 그는 “천하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감녕 같은 장수를 얻기 어려우니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다. 감녕은 그 후 오나라의 뛰어난 장수가 되었다.

그는 어려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손권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학문을 권하였다. 그는 심기일전하여 말년에는 상당한 학문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대도독 노숙이 그를 만나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 깜짝 놀랐다. 그는 “선비만 헤어지면 사물이 지나서 만년 눈을 비벼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괘목상대(刮目相對)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유래했다.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16 Census 경제총조사

함께해요! 경제총조사

2016년 6월 7일 ~ 7월 22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승인 통계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도록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 조사 대상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 기간 2016년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인터넷 조사 (6.7 ~ 6.30)

응답자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방문면접조사 (6.13 ~ 7.22)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

문의 사항

080-200-2016(무로)

월~토 09:00 ~ 20:00 홈페이지 (www.ecensus.go.kr)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남구 주월동 상가 지하층~6층 380평 토지103평 계석초등학교 앞코너 ▶ 감정가 8억 최저가 5억6천만원
- 담양읍 객사리 건물36평 토지131평 재건축가능 위치,생활권중음 ▶ 감정가 1억2천만 최저가 8천5백만원
- 광산구 월계동 6층상가건물물주 6층 건물63평 토지18평 사무실,상가 ▶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8백(감정가의 45%)
- 북구 매곡동 4층근린시설 대지224평 대지382평 학원,병원추천 ▶ 감정가 12억2천 최저가 8억5천만원
- 남구 진월동 전393평 전월대주 2차근처 등산로점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만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담양군 월산면 고급전원주택 대지211평 2층 건물82평 주변환경 최고 교통편리 ▶ 감정가 5억3천 최저가 3억7천
- 나주시 노안면 2층 건물91평 대지107평 주차편리 사무실 및 유통시설추천 ▶ 감정가 1억7천 최저가 6천2백
- 화순읍 삼천리 전243평 전월주택 건축가능 도로점 주변환경 양호 ▶ 최저거래가 2천3백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점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윤택하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에 이끈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업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권위자 강의자만 자재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